

社會의 病的 現象 (六)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社會의 病은 客觀標準이 無하다 (續)

그러나 現時 各國 政界를 觀察하면 各 政黨이 詰責합니다. 守舊黨은 進歩黨이 社會의 病的 產物이라고 社會黨은 有産階級을 社會病體의 象徴이라 합니다. 어찌 便이 社會의 病이오 어찌 便이 社會의 醫師인지 分辨키 困難합니다. 大概 그 所謂 非常處, 非常時, 非常量이라 하는 『常』字는 如何한 標準을 提示함입니까? 勿論 社會의 『健康』을 標準함이겠습니다. 그러면 『健康』의 標準은 엇더한 것입니까? 또 한번 病理學者의 說明을 借하면 퇴슬레 教授는 말하기를 生活이라 함은 展化되고 順應함인즉 健康한 生活은 그 有機體가 此 兩個 動作을 行할 때에 各 部分이 互相 調和하여 그 官能이 完全한 것을 意味함이라 합니다. 此論이 물론 우리 목적을 爲하여야는 不滿足하니(醫界에서도 健康과 病態의 標準을 確定키는 甚難합니다.), 卽 甲黨은 乙黨을 社會의 展化를 妨害하는 者라 하고, 丙黨은 丁黨을 社會의 順應作用(治安)을 妨害하는 것이라 하여 甚하면 殺戮까지를 不忍하니, 何者가 展化이며 何者가 病狀인지 標準키 不能합니다. 愚見 갖해서는 此問題에 對한 終局의 解決은 無할 줄 압니다. 何故오 하면 人類는 本來부터 社會進歩上 一定한 單合的 理想인 價値標準이 無한 까닭입니다. 哲學者가 數萬卷의 『價値哲學』을 著作할지라도 人類의 標準的 價値는 決定하기 困難하겠습니까. 價値의 標準은 純全히 主觀的입니다. 主觀의 數와 價値標準의 數는 正比例되겠습니다. 甲에게 生命問題 되는 것이 乙에게는 遊戲問題가 될 수도 있고, 昨日의 重寶가 今日의 塵埃가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 基督에게는 天意를 地上에 實現함이 生活의 本義오, 釋迦에게는 共生界를 離하여 生欲을 滅함이 最高價値며, 『닛체』의 超人은 어 이켄[오이켄]에게 對하여야는 一觀念에 不過할 것입니다. 더욱히 悲劇的임은 各 主觀的 價値가 互相 衝突됨입니다. 甲의 安樂問題로 乙의 生命問題가 無視됨이 만흐니, 大不列顛帝國의 富庫인 印度 까닭에 『암릿싸』 小村의 兒童의

生命이 抹殺을 當함은 그 一例이며, 歐洲人이 朝飯 前에 電話 一次로 世界 何地의 產物이든지 三十分 以內에 賞味하려는 便利를 爲하여 熱帶 殖民地 幾百萬人의 自由 發展이 妨害됨이 亦 그 一例입니다. 如斯히 目的도 一定치 못하거니와 그 目的을 達하는 方法 卽 文明人類의 道德觀念도 一定치 못합니다. 北半球人이 重罪라는 殺人을 南洋 某處(셀레베스)에서는 大德으로 認定하고, 我東亞에서 百行의 源이라 하는 孝가 歐洲에서는 單純한 親不親의 問題가 되고 맙니다.

戰後社會의 病的 現象

우리는 主觀的 痛感을 因하여 病들었다 하나 細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一大 幸福일지도 모르겠습니다. 如斯한 相對的 衝突은 우리가 이 生存競爭이 不絶하는 自然界에서 免치 못할 運命입니다. 그러나 우리 現代社會에서는 衝突을 受하는 便이나 衝突을 與하는 便이나 痛感을 同一히 經驗함은 事實입니다. 人類社會의 全體가 痛感을 이기지 못하는 目下 此時가 決코 擊壤歌를 唱하든 堯舜時代나 老子的 所謂 『百姓皆謂我自然』하는 時代가 안임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구든지 現世에 生活하는 이는 우리 社會가 重病 中에 잇슴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特히 世界戰爭 後에 每日 經驗하는 것은 病든 社會의 苦痛소래 썩입니다. 戰爭 그것이 우리 社會가 얼마큼 病들었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大砲소래는 곳 우리 社會의 肺病들인 咳嗽聲이엿섯습니다. 戰後狀態는 一見 平常狀態와 갓치 뵈이나, 이 사람 所見 갓해서는 重病에 氣盡하여 回復 餘望이 無한 患者의 狀態와 갓습니다. 『벨싸이[베르사이유]』 後에 『론돈[런던]』, 『파리』, 그 後에 『스파』, 『상레모[산레모]』, 또 그 後에 『워싱턴[워싱턴]』, 『즈네브』, 그 後에 『제노바[제노바]』 條約 後에 協商抗議書 後에 最後通牒. 이와 갓치 하여 社會의 깊은 病을 無數히 診察하고 手術하여, 社會의 身體는 누더기가 되얏지만은 病은 漸々 深重하여 갑니다. 所謂 國際聯盟이란 것은 本來부터 重患者의 產出한 것임으로 出生時부터 病兒인즉 畢竟은 그 生命이 永久치 못하겠습니다. 이 社會生活의 어느 方面을 보든지 病的 衝突 아님이 업스니, 이는 人類의 罪가 아니면 先天的 不整頓이라 하겠습니다. 如何한 階級의 如何한 職業에 從事하는 人이던지 現代에 生活하는 이는 自己의 周圍 事情이 不整頓하여, 一動一靜에 經驗하는 것마다 衝突이오 怨聲이오 哀哭임을 覺할 것입니다. 個人 對 個人, 階級 對 階級, 國民 對 國民, 人種 對 人種, 文明 對 文明, 總人類 生活界에 戰鬪 아닌 것이 업습니다.

每朝에 配達되는 新聞紙는 곳 現代社會의 重病症候書라 하여도 過言이 아

니겠습니다.

톨스토이의 預言

近日은 歐洲 全部의 無數한 政黨이 서로 爭鬪하여 不過 一週 內에 政治的 暗殺이 三次나 行함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이 모다 歐洲라 는 患者의 深重한 內病이 그 身體 外面에 發現되는 것입니다. 歐洲社會 全體 를 暫時 觀察하여도 그 運命이 危急하게 되입니다. 北歐의 俄國現象, 中歐의 德奧經濟, 東歐의 聃칸[발칸] 衝突, 南歐의 社會爭鬪, 西歐의 自由戰, 어느 方面으로 보든지 『오스왈드 수펡글러[오스발트 슈펡글러]』의 『西域의 滅亡』 이 不詳한 豫徵과 같습니다. 그러나 全世界 人類社會가 모다 病中에 있습니다. 西亞弗利加的 階級戰爭, 北亞弗利加的 民族自決戰, 南亞細亞의 印度의 不平, 東亞의 中國과 朝鮮의 不安, 其他 南北美洲의 階級爭鬪 等은 모다 人類 社會의 病的 生活을 表現하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翁의 預言이 實現되는 것 같습니다.